

2019년 5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분쟁 장기화 및 격화 우려로 하락 트럼프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

무역분쟁 관련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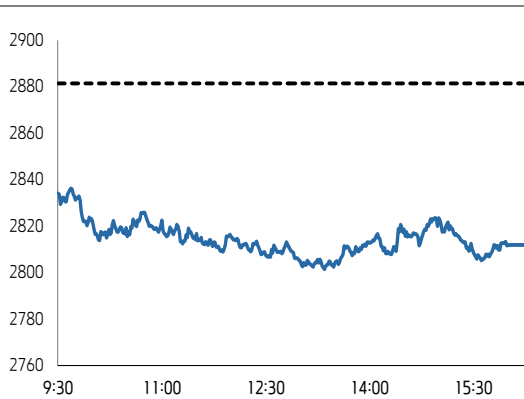
미 증시는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 발표하자 낙폭 확대. 한편, 장 후반 트럼프의 온건한 발언 이후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재차 매물 출회되는 등 투심 약화는 지속(다우 -2.38%, 나스닥 -3.41%, S&P500 -2.41%, 러셀 2000 -3.18%)

미국과 중국 정부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 등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높아짐. 미국이 대 중국 2 천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전일 대 미 600 억 달러 제품에 대해 기존의 5~10%의 관세율을 최고 25%로 상향 조정.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보복을 해서는 안되며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트윗을 남긴 직후 중국의 대 미 관세율 상향 조정 발표가 나오는 등 양국은 격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있음. 먼저 미국이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 했으나, 지난 9 월 30 일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이는 해상운송 기준으로 2~3 주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미국이 비록 중국에 관세율을 상향 조정 했으나, 실제 적용은 6 월로 미뤄졌다고 볼 수 있음(물론 항공운송을 주로 하는 IT 의 경우는 이미 적용 중).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오늘 발표한 6 백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상향 조정 또한 6 월 1 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결국 양국 모두 실제적인 관세율 인상은 6 월이라는 점을 감안 협상 기대감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언급. 더불어 “3,25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 특히 지난해 10 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트럼프 지지율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는 양상. 중국 정부도 격화된 반응 보다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언급. 이를 토대로 양국 모두 극단적인 사태 확산은 제어할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1.38	2,079.01	홍콩恒生	28,550.24	휴장		
KOSDAQ	-1.91	708.80	영국	7,163.68	-0.55		
DOW	-2.38	25,324.99	독일	11,876.65	-1.52		
NASDAQ	-3.41	7,647.02	프랑스	5,262.57	-1.22		
S&P 500	-2.41	2,811.87	스페인	9,046.80	-0.78		
상하이종합	-1.21	2,903.71	그리스	724.65	-1.54		
일본	-0.72	21,191.28	이탈리아	20,593.72	-1.3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무역분쟁 피해 업종 하락 주도

애플(-5.81%)은 무역분쟁이 격화되자,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5% 넘게 급락 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이어 중국에서 조립한 아이폰의 경우 이번 주 부터 상향 조정된 관세 율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큐로브(-5.35%), 스카이웜(-7.18%), 아나로그디바이스(-5.76%) 등 부품주도 급락 했다. 마이크론(-4.01%), 인텔(-3.12%), 텍사스인스트루먼트(-4.88%), NVIDIA(-6.14%) 등 반도체 업종도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피해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 했다.

보잉(-4.88%) 등 항공기 제조업종과 캐터필라(-4.60%) 등 기계업종, GM(-3.51%), 포드(-2.89%) 등 자동차 업종, 원리조트(-6.17%) 등 카지노 업종도 무역분쟁 피해 업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 매 물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아마존(-3.56%), 타겟(-3.97%), TJX(-3.24%), 콜스(-3.97%) 등 소 매 유통업종은 대 중국 수입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속에 하락했다. JP모건(-2.72%), BOA(-4.50%)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46%	대형 가치주 ETF(IVE)	-2.59%
에너지섹터 ETF(OIH)	-4.20%	중형 가치주 ETF(IWS)	-2.09%
소매업체 ETF(XRT)	-3.76%	소형 가치주 ETF(IWN)	-2.82%
금융섹터 ETF(XLF)	-2.91%	대형 성장주 ETF(VUG)	-2.86%
기술섹터 ETF(XLK)	-3.77%	중형 성장주 ETF(IWP)	-3.1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49%	소형 성장주 ETF(IWO)	-3.35%
인터넷업체 ETF(FDN)	-3.94%	배당주 ETF(DVY)	-1.81%
리츠업체 ETF(XLRE)	0.00%	신흥국 고배당 ETF(DEM)	-2.56%
주택건설업체 ETF(XHB)	-2.2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2.47%
바이오섹터 ETF(IBB)	-3.50%	미국 국채 ETF(IEF)	+0.50%
헬스케어 ETF(XLV)	-1.88%	하이일드 ETF(JNK)	-0.85%
곡물 ETF(DBA)	-0.26%	물가연동채 ETF(TIP)	+0.21%
반도체 ETF(SMH)	-4.64%	Long/short ETF(BTAL)	+2.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4.19	-1.58%	-2.11%	-7.09%
소재	337.24	-2.18%	-3.62%	-7.29%
산업재	623.48	-2.84%	-4.65%	-4.23%
경기소비재	902.79	-2.95%	-4.79%	-3.57%
필수소비재	583.37	-0.83%	-1.04%	+0.62%
헬스케어	1,009.16	-1.74%	-3.81%	-2.90%
금융	441.95	-2.87%	-4.43%	-1.93%
IT	1,284.72	-3.71%	-6.38%	-4.67%
커뮤니케이션	160.19	-2.52%	-4.16%	-2.83%
유틸리티	296.79	+1.11%	+1.03%	+0.50%
부동산	223.35	0.00%	-0.29%	-1.6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발 매수세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3.71% MSCI 신흥 지수 ETF 도 3.3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233 계약) 여파로 3.65pt 하락한 265.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7.6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이를 감안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미 증시도 관련 이슈와 중국의 600 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하는 등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하락 했다. 이렇듯 ① 무역분쟁 장기화 ② 중국의 대미 제품 관세율 인상 ③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투심 약화 등은 오늘도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증시 후반 ①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는 발언 ② 트럼프 대통령이 3,25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결정 안했다는 발언 ③ 미국과 중국 모두 관세율은 상향 조정 했으나 실질적인 인상은 6 월까지 연기 했다는 점 ④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현재 협상은 진행중이라는 발언등은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 비록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안화 변화에 따른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중국 OECD 경기선행지수 3 개월 연속 상향 조정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99.06) 보다 둔화된 98.98 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둔화폭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성장 모멘텀은 독일, 미국, 영국등 선진국 위주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중국(98.60→98.70)은 3 개월 연속 상승 하였고, 한국은 전월과 같은 98.99 로 발표되는 등 신흥국 선행지수가 개선되거나 위축이 멈추는 모습이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 후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격화된 반응이 이어지자 하락 전환 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무역분쟁으로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들이 부진한 점도 원유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무역분쟁이 격화되자 엔화의 강세 폭이 확대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무역전쟁이 격화되자 반사이익으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심의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중국의 대 미 관세율 인상이 발표되자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되었다.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우려가 확산되자 하락 했다. 더불어 뉴욕연은이 발표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결과 2.6%로 전월 발표 보다 0.2%p 하향 조정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많았으나, 영향을 줄 정도의 발언은 없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근접해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강력한 위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했다.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미국이 무역분쟁을 견딜 수 있으나 장기화는 문제라고 언급 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8% 상승 했으나, 아연이 1.28%, 구리는 0.61%, 니켈은 0.59%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1.04	-1.01	-1.94	Dollar Index	97.341	+0.01	-0.18
브렌트유	70.23	-0.55	-1.42	EUR/USD	1.1229	-0.04	+0.27
금	1,301.80	+1.12	+1.40	USD/JPY	109.3	-0.59	-1.32
은	14,777	-0.09	-1.00	GBP/USD	1.2960	-0.29	-1.05
알루미늄	1,809.00	+0.06	+0.56	USD/CHF	1.0065	-0.52	-1.13
전기동	6,011.00	-1.88	-3.61	AUD/USD	0.6945	-0.81	-0.66
아연	2,567.00	-2.40	-7.36	USD/CAD	1.3477	+0.45	+0.22
옥수수	356.50	+1.35	-2.13	USD/BRL	3.9815	+0.66	+0.35
밀	437.00	+2.88	-0.06	USD/CNH	6.9117	+0.98	+2.04
대두	802.50	-0.83	-3.34	USD/KRW	1187.50	+0.89	+1.50
커피	89.60	-1.32	-0.61	USD/KRW NDF 1M	1187.68	+1.19	+1.6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400	-6.75	-6.95	스페인	0.988	+1.30	+0.80
한국	1.877	+0.20	-2.50	포르투갈	1.149	+3.70	+3.30
일본	-0.048	+0.10	-0.80	그리스	3.549	+4.90	+21.60
독일	-0.070	-2.50	-7.60	이탈리아	2.699	+1.80	+12.20